

문화유사성과 군사충돌의 상호성에 관한 고찰

김형민* · 유진석**

〈요약문〉

국가 간 군사충돌(militarized conflicts)의 원인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지배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군사동맹(militarized alliance) 체결 여부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민주주의 수준(democracy level)과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논의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논의와 함께, 문화요인(cultural factors)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의 종결 이후, 군사분쟁 연구에서 문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라는 헌팅턴(Huntington 1993, 1996)의 주장을 중심으로, 후쿠야마(Fukuyama 1989, 1992,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 뮐러(Müller 1998, 문명의 공존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를 비롯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요인이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계량연구이며,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선행연구 논의), 군사분쟁이 문화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상호인과성(simultaneity, two-way causation)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요인 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와 측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문명권 변수를 포함하여, 인종유사성, 종교유사성, 언어유사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국가 간 군사분쟁의 발발은 문화 유사성을 저해하는 결과와 함께, 국가 간 문화 비유사성이 군사분쟁의 발발을 일으킨다는 (문명권 간 충돌현상)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주장이 계량적으로 검증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 군사분쟁, 문화 유사성, 인종 유사성, 종교 유사성, 언어 유사성, 상호인과성

* 제1저자(hmkim@mju.ac.kr)

** 교신저자(jyu@sookmyung.ac.kr)

I.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후 러시아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한 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예견된 반격 성격의 전쟁이라는 일부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서부터(Mearsheimer 2022; Walt 2022),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통해 21세기판 포트르 대체가 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이 전쟁의 원인을 찾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원인 분석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전쟁을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 세계관과 미국 중심의 서구와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다(Duclos 2022).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전쟁은 새뮤얼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Huntington 1993, 1996).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2024년 4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과 이란 및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충돌이며 그 바탕에는 유대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요인이 중요한 분쟁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요 지역분쟁들의 원인은 과연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이 실제로 전쟁의 원인이라는 경험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가 간 군사충돌(militarized conflicts)의 원인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지배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군사동맹(militarized alliance) 체결 여부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민주주의 수준(democracy level)과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논의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논의와 함께, 문화요인(cultural factors)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의 종결 이후, 군사분쟁 연구에서 문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헌팅턴의 주장을 중심으로, 후쿠야마(Fukuyama 1989, 1992,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 뮐러(Müller 1998, 문명의 공존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를 비롯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요인이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계량연구이며,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선행연구 논의), 군사분쟁이 문화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상호인과성(simultaneity, two-way causation)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

요인 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와 측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문명권 변수를 포함하여, 인종유사성, 종교유사성, 언어유사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요인이 군사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기존 이론 및 문헌

본 연구의 선행 이론, 문헌은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이 간과하였던, 문화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이러한 문명 패러다임 논의는 문명권 간 군사적 충돌을 강조하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93, 1996)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국내외 학계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연구, 계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카에다(al-Qaida) 테러집단의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인 2001년 9.11 사건 이후, 헌팅턴의 문명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주장이 미국 외교정책 연구에서, 국제정치학 국제분쟁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팅턴은 탈냉전기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은 냉전기 이데올로기 차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다름이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의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되는 문화의 차이(cultural difference)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헌팅턴은 1993년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The Clash of Civilizations?”과 1996년 출간한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국제체제가 서구(서구 문화), 이슬람(이슬람 문화), 중화(중화·유교 문화) 등 7~8개의 문명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문명적, 문화적 요소의 차이가 탈냉전기 국가 간 협력·대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관계에서 문명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주장으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89, 1992)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논의에서, 비서구 문명권의 종말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 중심의) 서구 문명권으로의 역사적 귀결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후쿠야마는 1989년 『The National Interests』에 발표한 “The End of History?” 1992년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끝나고, 서구문명의 기반이라고 주장되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시장자본주의가 인류진화와 정부의 최종형태이며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문명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다른 논의로 하랄드 뮐러(Harald Müller 1998)는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논의에서, 국제관계에서의 문명 간 차이와 문명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지구적 공동체 의식, 정보소통의 증대에 기인한 문명권 간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문명공존을 강조하는 뮐러(Müller 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명충돌 혹은 문화적으로 비유사한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인 논의도 존재하는데, 그레이(Gray 1998), 거(Gurr 1994), 아이켄베리(Ikenberry 1997), 커크패트릭 외(Kirkpatrick et. al. 1993), 커스(Kurth 1994), 니커만(Neckerman 1998), 쟁하스(Senghaas 1998), 야마자키(Yamazaki 1996)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쟁하스(Senghaas 1998)는 문명충돌론 주장은 다양한 문명권 행위자들의 내재관계에 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 간 인종갈등의 기본요인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차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문명충돌론 주장과 관련된 국가 간 관계에서의 문명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관한 다른 연구로, 문명충돌의 역사를 종교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룰랜드(Ruelland 1993), 문명충돌론 주장을 역사적 맥락으로 검토한 피들러(Fiedler 2013)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국내 학계에서 문화, 인식,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논의의 웬트(Wendt 1999), 강정인(2006), 권선홍(2010, 2014, 2017), 김명섭(2003), 민병원(2006), 양승태(2012), 양준희(2002), 이선엽(2010), 장신성(2003), 장인성(2000, 2004), 장준호(2005, 2007), 최정운(2007), 최진우(2012), 홍성민(2002)은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명 패러다임의 적실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민병원(2006)은 특히 냉전의 종결 이후 점증하는 문화, 문명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유사하게 최진우(2012)는 정치학 분야에서의 문화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문화와 문화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 영역에서의 문화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주로 해외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관련 문헌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을 참조, 김형민 2017a). 문화요인의 군사분쟁에의 영향에 관한 선행 계량연구는, 문명권 간 군사분쟁 발발의 확대를 강조하는 헌팅턴의 주장을 검증하는 데 그 중심이 있다. 이러한 계량연구 결과물의 공통점은 헌팅턴의 주장과는 달리 문명권 간 군사분쟁 발발 빈도의 확대가 계량적으로 검증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헌팅턴의 주장(Huntington 1993, 1996)과는 달리, 문명권 간 군사분쟁은, 비문명권 간 군사분쟁과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음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레이(Gray 1998), 거(Gurr 1994), 아이켄베리(Ikenberry 1997), 커크패트릭 외(Kirkpatrick et al. 1993), 커스(Kurth 1994), 니커만(Neckerman 1998), 야마자키(Yamazaki 1996)는 문명 패러다임의(군사적 긴장·갈등 관계에의) 적실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키오자(Chiozza 2002), 데이비스 외(Davis et al. 1997), 엘링슨(Ellingsen 2000), 폭스(Fox 2001, 2002, 2004, 2007), 가츠키와 글레디치(Gartzke and Gleditsch 2006), 글레디치와 싱어(Gleditsch and Singer 1995), 헨더슨(Henderson 1997, 1998, 2005), 헨더슨과 싱어(Henderson and Singer 2000),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라이(Lai 2006), 랭과 리간(Leng and Regan 2003), 미들라스키(Midlarsky 1998), 러셋 외(Russett et al. 2000), 투시시스니(Tusicsisny 2004)는 국제관계에

서 문화요인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문명과 군사분쟁 상관관계에 관하여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관련하여 추가로, 언어와 국제무역에 관하여서는 대표적으로 Head et al. 2010, Melitz and Toubal 2014; 문화적 요인과 군사동맹에 관하여서는 대표적으로 Cranmer et al. 2012, Lai and Reiter 2000; 문화적 요인과 내전(civil wars)과 관하여서는 대표적으로 Cordell and Wolff 2016, Jesse and Williams 2010). 유사하게, 러셋 외(Russett et al. 2000)는 문명충돌론 주장을 1950년부터 1992년까지의 국가 간 군사분쟁 자료로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다양한 계량연구는 일관되게, 헌팅턴의 이론적 주장과는 달리, 냉전기와 탈냉전기 모두 문명적 요소가 국가 간 군사충돌에 미치는 직·간접적 계량적 증거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가설 및 모델

본 연구는 관련 주제의 선행 이론연구, 선행 계량연구에 기초하여, 문화요인이 국가 간 군사충돌 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충돌 발발이 국가 간 문화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한다.¹⁾

연구가설 1 : 문화 비유사성은 국가 간 다양한 군사충돌 (군사분쟁, 군사위기) 발발을 야기한다 (문명충돌론 주장).

연구가설 2 : 군사충돌의 발발은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유사성 (문명권, 인종유사성, 종교유사성, 언어유사성)을 저해한다.

<연구가설 1>은 군사분쟁의 발발이 문화(혹은 문명)를 공유하지 않은 국가 간 활발히 진행된다는 문명충돌론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계량검증을, <연구가설 2>는 군사분쟁의 발발이 국가 간 문화유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논의에 대한 계량검증을 위해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인 김형민(2017a, 2017b, 2017c), 김형민 외(2018), 김형민·유진석(2024), 이장욱·김형민(2019)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를 확대·발전하여, 문화요인·군사분쟁 변수 간 상호인과성(simultaneity)을 강조하는 분석방법의 채택, 문화요인 연구모델,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분석변수를 위한 데이터와 측정방법의 다양화를 선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Y_{i,t} = \beta_0 + \beta_1 * X_{1,t} + \beta_2 * X_{2,t} + \beta_3 * X_{3,t} + \beta_4 * X_{4,t} + \beta_5 * X_{5,t} + \beta_6 * X_{6,t} + \beta_7 * X_{7,t} + \beta_8 * X_{8,t} + \beta_9 * X_{9,t} + \beta_{10} * X_{10,t} + \beta_{11} * X_{11,t} + \beta_{12} * X_{12,t} + \beta_{13} * X_{13,t} + e$$

Y : 군사충돌의 발발(onset of militarized dispute, crisis)

X_1 : 국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X_2 :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X_3 :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X_4, X_5 : 민주화 수준(levels of democracy)

X_6 :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X_7, X_8 :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X_9, X_{10}, X_{11}, X_{12}$: 과거 분쟁경험(peace year, spline1, spline2, spline3)

X_{13} : 문화요인(civilizations, ethnic, religious, linguistic similarities)

$$Y_{i,t} = \beta_0 + \beta_1 * X_{1,t} + \beta_2 * X_{2,t} + \beta_3 * X_{3,t} + \beta_4 * X_{4,t} + \beta_5 * X_{5,t} + \beta_6 * X_{6,t} + \beta_7 * X_{7,t} + \beta_8 * X_{8,t} + \beta_9 * X_{9,t} + \beta_{10} * X_{10,t} + \beta_{11} * X_{11,t} + e$$

Y : 문화요인(civilizations, ethnic, religious, linguistic similarities)

X_1 : 군사충돌의 발발(onset of militarized dispute, crisis)

X_2, X_3 :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X_4 : 지리적 지역(same region)

X_5 :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X_6 : 공동의 적(joint enemy)

X_7 :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X_8 : 외교정책 유사성(foreign policy similarities)

X_9 : 식민지 관계(colonial relationship)

X_{10} : 공동의 법 기원(common legal origin)

X_{11} : 공동의 화폐 기원(common currency origin)

2. 분석자료,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의 측정,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에 준하였다.²⁾ 먼저, 군사분쟁 연구모델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분석변수로, 첫째 군사분쟁 종속변수(onset of militarized dispute, crisis, 문화요인 연구모델 독립변수)는, 국가 간 다양한 군사적 충돌에 관한 COW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Version 5.0, 1816~2014 (Ghosn et al. 2004; Jones et al. 1996; Maoz et al. 2018; Palmer et al. 2015; Palmer et al. 2020),

2) 본 연구의 군사분쟁 모델, 문화요인 모델 분석에서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와 변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간략하게 소개함을 밝힌다.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ICB) Version 12 (Brecher and Wilkenfeld 2000)를 사용하였으며, 국가 간 다양한 군사충돌이 발발하였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이분화 변수로 측정하였다 (군사분쟁 변수, 문화유사성 변수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와 변수 측정방법에 관하여 추가로 다음을 참조, 김형민 2017a, 김형민·유진석 2024).

다음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핵심 독립변수(문화요인 연구모델의 종속변수)인 문화유사성 변수의 다양화를 선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문명권 분류(civilizations categories)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계량연구를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문화 유사성(cultural similarities)을 측정하는 문화변수를 다양한 자료와 측정방법으로 다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문명권 분류에 관한 키오자(Chiozza 2002), 폭스(Fox 2001, 2002), 헨더슨(Henderson 1998),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헌팅턴(Huntington 1996), 러셋 외(Russett et al. 2000)의 자료, 종교유사성에 관한 COW World Religion Data Version 1.1 (Maoz and Henderson 2013), CEPII(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 GeoDist (Head et al. 2010; Melitz and Toubal 2014)의 자료, 인종 유사성에 관한 헨더슨(Henderson 1997), 라이와 라이터(Lai and Reiter 2000)의 자료, 언어 유사성에 관한 CEPII GeoDist (Head et al. 2010; Melitz and Toubal 2014), 헤이브만(Haveman 2017) 자료를 사용하여, 두 국가가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으면 혹은 문화의 구체요소라고 주장되는 인종, 종교, 언어의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³⁾

군사분쟁 모델의 통제변수(독립변수)인 국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변수는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ersion 6.0, 1816~2016 (Singer 1987; Singer et al. 1972)를 사용하여 국가 간 국력의 균형·불균형 여부,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변수는 COW Formal Alliance Version 4.1, 1816~2012 (Gibler 2009; Small and Singer 1969)를 사용하여 국가 간 동맹체결 (defense pact, neutrality or no-aggression pact, entente agreement),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변수는 COW State System Membership Version 2016, 1816~2016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7)을 사용하여 강대국의 존재 여부, 민주화 수준(levels of democracy) 변수는 Polity V, 1800~2018 자료를 사용하여 (Marshall and Gurr 2020) 민주화 수준,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변수는 COW International Trade Version 4.0, 1870~2014 (Barbieri and Keshk 2016; Barbieri et al. 2009)와, 오닐과 러셋의 자료를 사용하여 (Hegre et al. 2010; Oneal and Russett 1997; Oneal et al. 2003; Russett and Oneal 2001) 국가 간 무역 분야에서의 상호의존도,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3) 문명 (혹은 문화) 개념,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인종, 종교, 언어의 문화대표성 등 보다 근본적으로 철학적, 이론적 고민은 본 연구(계량분석)의 연구범위를 넘어서지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변수는 Direct Contiguity Version 3.2, 1816~2016 (Gochman 1991; Stinnett et al. 2002)와 Minimum Distance Data Version 0.97, Distance Between Capital Cities (Gleditsch and Ward 2001)을 사용하여 국가 간 지리적 근접성(두 국가가 육지·강·바다를 둘러싸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를 측정한 이분화 변수와 국가 간 지리적 거리를 측정한 연속변수, Bennett and Stam 2000),⁴⁾ 과거 분쟁경험(peace year, spline1, spline2, spline3) 변수는 국가 간 과거 분쟁 경험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벡, 카츠와 터커(Beck et al. 1998)의 이론적, 통계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군사분쟁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요인 연구모델의 통제변수(독립변수)인,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변수는 군사분쟁 연구모델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공동의 적(joint enemy) 변수는 Conflict Interaction Level Version 1.1 (Crescenzi and Enterline 2001; Crescenzi et al. 2008)을 사용하여, 공동의 적의 보유 여부를 과거 10년간 군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측정방법을 차용하였다. 외교정책 유사성(foreign policy similarities) 변수는 동맹 자료인 COW 프로젝트의 Formal Alliance Version 4.1 (Gibler 2009; Singer and Small 1966; Small and Singer 1969)과 국제연합 투표에 관한 보이텐과 그 동료학자들(Bailey et al. 2017, Voeten 2013)의 자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set)를 사용한, 헤이지(Háge 2011)가 제공하는 외교정책 유사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Measures of Foreign Policy Similarity(FPSIM) Dataset). 다양한 측정방법 (시노리노와 리터(Signorino and Ritter 1999)의 S, 스캇(Scott 1955)의 n, 그리고 코헨(Cohen 1960)의 k)가 활용된 외교협력(외교정책 유사성) 변수는 -1(이론적으로 외교정책이 가장 비유사한 경우)부터 시작되는 연속변수로 그 값이 커질수록(1, 이론적으로 외교정책이 가장 유사한 경우) 두 국가 간 외교협력(외교정책 유사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관계(colonial relationship) 변수는 두 국가가 과거 식민지 경험을 공유했거나, 직접적인 식민지 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 공동의 법 기원(common legal origin) 변수와 공동의 화폐 기원(common currency origin) 변수는 국가 간 역사적으로 동일한 법 기원이나 화폐 기원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적이며, 해당의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4) 예를 들어, 군사동맹 변수의 측정사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부터 방위조약(defense pact)을 맺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변수의 측정사례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육지로 분리된 (“separated by a land or river border”), 중국·일본과 바다로 분리된 (“by 150 miles of water or less, but more than 24 miles”), 러시아와 바다로 분리된 (“by 400 miles of water or less, but more than 150 miles”) 국경을 인접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위도·경도를 사용한 수도 간 대원거리에서 (“great circle distance between capital cities”) 북한과는 238km (148mi), 중국과는 959km (598mi), 일본과는 1,173km (731mi), 러시아와는 6,671km (4,159mi), 미국과는 11,218km (6,994mi)의 지리적 차이가 있다.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식민지 관계를 공유한, 공동의 법 기원을 가진, 공동의 화폐 기원을 가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문화요인 모델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며, CEPII GeoDist (Head et al. 2010; Melitz and Toubal 2014)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기존 계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 두 번째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있다. 문화유사성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계량연구는 문명권 변수가 군사분쟁 변수에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호인과성(simultaneity)이 존재할 경우, 두 변수 간 상호인과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control)하지 않은 분석방법은 잘못된 분석결과(erroneous conclusions)를 도출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이와 관련한 논의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다음을 참조, Greene 2011, Gujarati and Porter 2009). 변수 간 인과관계에 관한 계량경제학의 이론적, 통계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two-way causation)을 검증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instrumental variables, limited-information two-stage probit least squares estimation, Amemiya 1978; Heckman 1978; Maddala 1983), 이러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1) 군사분쟁이 문화요인에 미치는 인과성을 통제한, 군사분쟁에의 문화요인 영향 분석, 2)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인과성을 통제한, 문화요인에의 군사분쟁 영향 분석의 결과물을 본 연구는 제공한다.

〈표 1〉 문화요인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 ;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모델1-1	모델1-2	모델1-3	모델1-4	모델1-5	모델1-6
독립변수						
문화 유사성 (Cultural Similarities)	1.0881*** (0.1254)	1.3542*** (0.1413)	0.9735*** (0.1204)	-1.2213*** (0.1397)	0.5875*** (0.1930)	0.7861*** (0.1909)
국력의 균형 (Balance of Power)	-0.0402*** (0.0109)	-0.0367*** (0.0105)	-0.0430*** (0.0109)	-0.0371*** (0.0108)	-0.0405** (0.0135)	-0.0445*** (0.0136)
군사적 동맹 (Shared Alliance Ties)	-0.2714*** (0.0516)	-0.3604*** (0.0578)	-0.2297*** (0.0534)	-0.3221*** (0.0573)	-0.1607* (0.0955)	-0.2139** (0.0908)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8058*** (0.0422)	0.8160*** (0.0412)	0.8328*** (0.0418)	0.8166*** (0.0421)	0.8309*** (0.0491)	0.8417*** (0.0490)
민주화 수준 I (Level of Democracy Higher)	0.0247*** (0.0027)	0.0238*** (0.0026)	0.0236*** (0.0027)	0.0239*** (0.0026)	0.0233*** (0.0038)	0.0250*** (0.0038)
민주화 수준 II (Level of Democracy Lower)	-0.0232*** (0.0031)	-0.0235*** (0.0028)	-0.0266*** (0.0030)	-0.0210*** (0.0029)	-0.0155*** (0.0036)	-0.0175*** (0.0036)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8.1761*** (2.4539)	-10.3671*** (2.3897)	-6.9157** (2.4427)	-9.8089*** (2.4557)	-4.4622 ⁺ (2.8803)	-3.9419 ⁺ (2.8943)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7806*** (0.0447)	0.7951*** (0.0453)	0.8407*** (0.0432)	0.8112*** (0.0446)	0.8330*** (0.0533)	0.7924*** (0.0559)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01241*** (0.0291)	-0.0871** (0.0305)	-0.1310*** (0.0279)	-0.1125*** (0.0300)	-0.2663*** (0.0354)	-0.2337*** (0.0370)
과거 분쟁경험 I (Peace Year)	-0.1056*** (0.0078)	-0.0975*** (0.0075)	-0.1064*** (0.0077)	-0.1027*** (0.0077)	-0.0972*** (0.0094)	-0.0947*** (0.0095)
과거 분쟁경험 II (Spline 1)	-0.0004*** (0.0000)	-0.0004*** (0.0000)	-0.0004*** (0.0000)	-0.0004*** (0.0000)	-0.0003*** (0.0000)	-0.0003*** (0.0000)
과거 분쟁경험 III (Spline 2)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과거 분쟁경험 IV (Spline 3)	-0.0000 (0.0000)	-0.0000 ⁺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	-1.7103*** (0.2322)	-2.0408*** (0.2266)	-1.7319*** (0.2228)	-0.5904*** (0.1409)	-0.5912* (0.2963)	-0.8679** (0.3030)
N	333,176	351,950	347,730	344,138	184,655	169,83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군사충돌 연구모델의 군사충돌 종속변수를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1-1에서 모델 1-6은 구체적으로, 문화요인 변수를 위하여 모델 1-1은 러셋 외(Russett et al. 2000), 모델 1-2는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모델 1-3은 갤로웨이(Galloway 2008), 모델 1-4는 키오자(Chiozza 2002), 모델 1-5과 모델 1-6은 폭스(Fox 2001, 2002)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군사충돌 모델이다.

〈표 2〉 문화요인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I ;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델2-4	모델2-5	모델2-6
독립변수						
문화 유사성 (Cultural Similarities)	1.0959*** (0.1430)	1.2981*** (0.1664)	0.9653*** (0.1380)	-1.1727*** (0.1633)	0.5569** (0.2259)	0.7555*** (0.2217)
국력의 균형 (Balance of Power)	-0.0192+ (0.0124)	-0.0146 (0.0120)	-0.0227* (0.0125)	-0.0171+ (0.0125)	-0.0181 (0.0155)	-0.0167 (0.0155)
군사적 동맹 (Shared Alliance Ties)	-.02664*** (0.0594)	-0.3262*** (0.0688)	-0.2165*** (0.0618)	-0.2886*** (0.0676)	-0.1343 (0.1135)	-0.1865* (0.1074)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6632*** (0.0490)	0.6671*** (0.0475)	0.6780*** (0.0490)	0.6683*** (0.0488)	0.6675*** (0.0575)	0.6729*** (0.0571)
민주화 수준 I (Level of Democracy Higher)	0.0237*** (0.0030)	0.0226*** (0.0029)	0.0227*** (0.0031)	0.0230*** (0.0030)	0.0216*** (0.0043)	0.0234*** (0.0043)
민주화 수준 II (Level of Democracy Lower)	-0.0247*** (0.0035)	-0.0250*** (0.0032)	-0.0282*** (0.0035)	-0.0227*** (0.0034)	-0.0174*** (0.0042)	-0.0193*** (0.0042)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4.6732* (2.2864)	-6.4687** (2.2446)	-3.4499+ (2.2848)	-5.9766** (2.3013)	-0.9416 (2.6944)	-0.4092 (2.6976)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7158*** (0.0503)	0.7406*** (0.0510)	0.7774*** (0.0489)	0.7585*** (0.0504)	0.7642*** (0.0604)	0.7204*** (0.0630)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1352*** (0.0329)	-0.1023** (0.0351)	-0.1412*** (0.0316)	-0.1273*** (0.0343)	-0.2761*** (0.0404)	-0.2458*** (0.0419)
과거 분쟁경험 I (Peace Year)	-0.0718*** (0.0089)	-0.0633*** (0.0086)	-0.0711*** (0.0089)	-0.0673*** (0.0088)	-0.0697*** (0.0108)	-0.0687*** (0.0110)
과거 분쟁경험 II (Spline 1)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과거 분쟁경험 III (Spline 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과거 분쟁경험 IV (Spline 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	-1.8671*** (0.2602)	-2.1739*** (0.2581)	-1.8987*** (0.2502)	-0.7794*** (0.1598)	-0.7357* (0.3393)	-0.9959** (0.3430)
N	330,382	349,301	345,079	341,419	183,167	168,39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 $p \leq .10$,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군사충돌 연구모델의 군사충돌 종속변수를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2-1에서 모델 2-6은 구체적으로, 문화요인 변수를 모델 2-1은 러셋 외(Russett et al. 2000), 모델 2-2는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모델 2-3은 갤로웨이(Galloway 2008), 모델 2-4는 키오자(Chiozza 2002), 모델 2-5와 모델 2-6은 폭스(Fox 2001, 2002)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군사충돌 모델이다.

〈표 3〉 문화요인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II ;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모델3-5	모델3-6
독립변수						
문화 유사성 (Cultural Similarities)	0.3506* (0.2154)	0.4710* (0.2619)	0.2718 ⁺ (0.1990)	-0.3368 ⁺ (0.2448)	-0.6293** (0.2627)	-0.3977 ⁺ (0.2871)
국력의 균형 (Balance of Power)	-0.0717*** (0.0169)	-0.0640*** (0.0169)	-0.0705*** (0.0168)	-0.0699*** (0.0170)	-0.0687*** (0.0200)	-0.0635*** (0.0203)
군사적 동맹 (Shared Alliance Ties)	0.1004 (0.0860)	0.0620 (0.1036)	0.1330 ⁺ (0.0867)	0.1094 (0.0975)	0.5078*** (0.1246)	0.4107*** (0.1306)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8641*** (0.0647)	0.8504*** (0.0638)	0.8616*** (0.0645)	0.8547*** (0.0645)	0.7457*** (0.0773)	0.7509*** (0.0782)
민주화 수준 I (Level of Democracy Higher)	0.0185*** (0.0040)	0.0177*** (0.0040)	0.0171*** (0.0040)	0.0178*** (0.0040)	0.0140** (0.0056)	0.0162** (0.0056)
민주화 수준 II (Level of Democracy Lower)	-0.0426*** (0.0057)	-0.0463*** (0.0054)	-0.0470*** (0.0056)	-0.0444*** (0.0056)	-0.0374*** (0.0065)	-0.0399*** (0.0064)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18.4296* (8.2924)	-18.5087* (8.0652)	-17.7788* (8.1644)	-18.7253* (8.1086)	-31.3923** (11.2077)	-31.9003** (11.7086)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6384*** (0.0626)	0.6600*** (0.0624)	0.6707*** (0.0613)	0.6653*** (0.0619)	0.6503*** (0.0684)	0.6406*** (0.0713)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2270*** (0.0426)	-0.2075*** (0.0466)	-0.2294*** (0.0403)	-0.2288*** (0.0440)	-0.4128*** (0.0391)	-0.3931*** (0.0437)
과거 분쟁경험 I (Peace Year)	-0.0985*** (0.0133)	-0.0905*** (0.0130)	-0.0948*** (0.0132)	-0.0947*** (0.0132)	-0.0688*** (0.0158)	-0.0729*** (0.0163)
과거 분쟁경험 II (Spline 1)	-0.0004*** (0.0001)	-0.0004*** (0.0001)	-0.0004*** (0.0001)	-0.0004*** (0.0001)	-0.0002* (0.0001)	-0.0003* (0.0001)
과거 분쟁경험 III (Spline 2)	0.0002** (0.0000)	0.0002** (0.0000)	0.0002** (0.0000)	0.0002**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과거 분쟁경험 IV (Spline 3)	-0.0000 (0.0000)	-0.0000 ⁺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	-1.2358*** (0.3793)	-1.5238*** (0.3928)	-1.2964*** (0.3541)	-0.9512*** (0.2182)	0.4083 (0.4125)	0.1613 (0.4460)
N	331,160	350,109	345,872	342,224	183,747	168,96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군사충돌 연구모델의 군사충돌 종속변수를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3-1에서 모델 3-6은 구체적으로, 문화요인 변수를 위하여 모델 3-1은 러셋 외(Russett et al. 2000), 모델 3-2는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모델 3-3은 갤로웨이(Galloway 2008), 모델 3-4는 키오자(Chiozza 2002), 모델 3-5와 모델 3-6은 폭스(Fox 2001, 2002)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군사충돌 모델이다

〈표 4〉 군사충돌이 문화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문화 유사성 (Cultural Similarities)	모델4-1	모델4-2	모델4-3	모델4-4	모델4-5	모델4-6
독립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21.4926*** (0.0270)	-21.5932*** (0.0289)	-21.6385*** (0.0282)	-26.0894*** (0.0438)	-26.5617*** (0.0333)	-26.5010*** (0.0331)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1.1428*** (0.0123)	1.1648*** (0.0121)	1.1542*** (0.0122)	0.9039*** (0.0124)	0.9087*** (0.0122)	0.9063*** (0.0122)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0564*** (0.0038)	-0.0699*** (0.0043)	-0.0625*** (0.0037)	-0.0475*** (0.0038)	-0.0536*** (0.0041)	-0.0510*** (0.0036)
지리적 지역 (same region)	0.0835*** (0.0092)	0.1072*** (0.0085)	0.1308*** (0.0094)	0.0567*** (0.0089)	0.0693*** (0.0083)	0.0871*** (0.0091)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6.7670*** (0.6811)	-6.3742*** (0.6862)	-6.5990*** (0.6802)	-3.2053*** (0.6846)	-2.7896*** (0.6866)	-3.0062*** (0.6820)
공동의 적 (joint enemy)	0.1214*** (0.0064)	0.1106*** (0.0062)	0.1175*** (0.0063)	0.0825*** (0.0065)	0.0792*** (0.0063)	0.0826*** (0.0064)
군사적 동맹 (Shared Alliance Ties)	0.1148*** (0.0207)	0.1491*** (0.0212)	0.1361*** (0.0206)	0.0862*** (0.0207)	0.1156*** (0.0211)	0.1067*** (0.0206)
외교정책 유사성 (foreign policy similarities)	-0.1623*** (0.0207)	-0.1559*** (0.0207)	-0.1379*** (0.0207)	-0.1339*** (0.0207)	-0.1297*** (0.0207)	-0.1186*** (0.0207)
식민지 관계 (colonial relationship)	0.1798*** (0.0141)	0.1976*** (0.0140)	0.2187*** (0.0140)	0.1271*** (0.0142)	0.1273*** (0.0141)	0.1321*** (0.0141)
공동의 법 기원 (common legal origin)	-0.0164*** (0.0038)	-0.0066* (0.0040)	-0.0055 ⁺ (0.0039)	-0.0131*** (0.0038)	-0.0064 ⁺ (0.0039)	-0.0057 ⁺ (0.0039)
공동의 화폐 기원 (common currency origin)	-0.1894*** (0.0151)	-0.2126*** (0.0155)	-0.2016*** (0.0152)	-0.1134*** (0.0149)	-0.1187*** (0.0152)	-0.1164*** (0.0149)
상수	0.4087*** (0.0284)	0.4583*** (0.0292)	0.3971*** (0.0273)	0.3630*** (0.0284)	0.3749*** (0.0288)	0.3488*** (0.0272)
N	333,176	351,950	347,730	330,382	349,301	345,07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문화유사성 연구모델의 군사충돌 독립변수를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4-1에서 모델 4-6은, 구체적으로 모델 4-1에서 모델 4-3은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데이터와 측정방법(문화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으로, 모델 4-1은 러셋 외(Russett et al. 2000), 모델 4-2는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모델 4-3은 갤로웨이(Galloway 2008)), 모델 4-4에서 모델 4-6은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활용한 모델이다.

3. 분석결과 및 해석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 기간(1946~2001년) dyadic 데이터를 사용한 dyadic 데이터 분석의 연구결과로, 먼저 <표 1~표 3>과 <부록 1>는 문화유사성이 군사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문화유사성과 군사분쟁 발발 변수의 측정을 위한 데이터와 변수 측정방법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자료와 특정 변수 측정방법이 본 연구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와 강건성(robustness)을 담보하기 위함이다.⁶⁾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두 번째 차이점은,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 분석을 넘어서, 두 변수 간 상호인과성(simultaneity)을 고려한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causation) 분석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두 가지 특징적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다양한 군사충돌에 관한 (군사분쟁, 군사위기) 데이터, 변수측정 방법 (Brecher and Wilkenfeld 2000; Ghosn et al. 2004; Jones et al. 1996; Maoz et al. 2018; Palmer et al. 2015; Palmer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 문화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문명권 분류 데이터, 변수측정 방법과 함께, 다양한 문화요인에 관한 (인종유사성, 종교유사성, 언어유사성) 데이터, 변수측정 방법 (Chiozza 2002; CIA World Factbook, various years; Fox 2001, 2002; Haveman 2017; Head et al. 2010; Henderson 1997, 1998; Henderson and Tucker 2001; Huntington 1996; Lai and Reiter 2000; Maoz and Henderson 2013; Melitz and Toubal 2014; Russett et al. 2000)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가 간 문화 유사성이 군사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 주제의 기존 계량연구의 결과와 부합되게, 문화비유사성이 국가 간 다양한 종류의 군사충돌의 발발을 야기한다는 <연구가설 1, 헌팅턴 문명충돌론 주장>이 계량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다름이 국가 간 군사분쟁을 야기한다는 문명충돌론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문화의 유사성은 오히려 군사분쟁을 야기한다는 분석결과를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군사분쟁, 문화요인 데이터와 다양한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모델에서 일관되게 증

5)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두 연구모델의 변수측정을 위해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의 한정성에 바탕한다. 각 변수를 위한 데이터의 추가 수집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지만,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의 방향성임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의 변수 간 인과관계(causal link), 특히 군사분쟁이 문화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문화유사성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변수 간 인과성에 관한 추가적 이론적, 방법론적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6) 본 연구 분석결과와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 분석자료, 변수측정 방법, 연구모델의 다양화 등). 추가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주 연구분석(main analysis)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록 1> 참조).

거되고 있다는 특징도 주목할 만하다.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가 주장하듯이,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때로 군사적 긴장·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의 증거물을 본 연구는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특징적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방향 분석과 함께, 두 변수 간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쌍방향 분석방법을 활용한 결과 (앞서 언급한 문화유사성이 군사분쟁을 야기한다는 분석결과)가 일방향 분석방법을 사용한 모델에서는 도출되지 않는 결과이다. 분석방법 파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변수 간 상호인과성(simultaneity)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상호인과성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방법은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며(Greene 2011, Gujarati and Porter 2009),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 (문화유사성의 군사분쟁에의 영향, 군사분쟁의 문화유사성에의 영향)이 계량적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요인과 군사분쟁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던 기존 계량연구의 한계 (변수 간 일방향 분석)를 극복했다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 공헌 (methodological contribution)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선행 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인, 변수 측정방법과 이에 사용된 데이터의 다양화,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극복한 쌍방향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명확히 증거되고 있다.⁷⁾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다른 분석결과, 관련 주제의 기존 계량연구 결과와 맞닿아 있다. 세력불균형이론 주장인 국력의 균형이 군사분쟁의 발발을 확대한다는 논의 (국력의 균형 통제변수), 군사적 동맹관계가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주장 (군사적 동맹 변수), 강대국 간 군사분쟁의 빈번함에 대한 주장 (강대국 여부 변수), 민주평화론(공화자유주의) 주장인 민주주의 국가 간 군사분쟁의 억지 (민주화 수준 변수), 상업평화론(상업자유주의) 주장인 경제적 상호의존이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주장 (경제적 상호의존 변수), 지리적 근접성이 군사분쟁을 야기한다는 주장 (지리적 근접성 변수), 과거의 군사분쟁 경험이 이후의 분쟁을 야기한다는 주장 (과거 분쟁경험 변수) 모두,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계량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특정 분석자료, 특정 변수 측정방법을 넘어서 다양한 분석자료, 다양한 변수 측정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동일하게 증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의 명확성).

다음으로, <표 4>는 군사분쟁 발발이 국가 간 문화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가 간 군사분쟁의 발발이 문화 유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다양한 종류의 군사적 충돌 (군사분쟁, 군사위기)을 경험한 국가군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이질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다양한 선행연구가 주장하듯이, 국가 간 갈

7)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핵심 주제인 문화요인과 군사분쟁 변수 간 결과에 중심하고 있음을 밝힌다.

등의 높은 수준인 군사적 긴장·갈등을 경험한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이에 대한 역사적 학습화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비동질화되는 경향성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증거되고 있다. 이는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석자료,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한 분석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다. 또한, 문화요인 연구모델의 다양한 분석결과는 관련 주제 선행연구의 계량결과와 유사하게 증거되는데,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군은, 그렇지 않은 국가군에 비교하여, 문화 유사성의 경향을 가짐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 간 문화 유사성 경향도 마찬가지이다. 헨팅턴 자신도 문명권 분류를 위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종교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또한 군사적 상호의존관계(군사적 동맹관계) 국가 간 문화 유사성의 경향성을 증거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서로 밀접화 되어 있는 국가군이 문화적으로 동질화되는 현실은 기존의 선행연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요인 연구모델의 나머지 분석결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문화유사성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기존의 연구결과가 증거하듯이, 제3의 위협대상을 가진 국가군, 과거 식민지 관계에 있었거나(식민지 관계를 공유했던) 국가군은,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논의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석자료, 변수 측정방법, 군사분쟁과 문화요인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의 활용에서 증거되고 있는 특징은 앞서와 동일하다.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무력분쟁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원인으로서는 종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 또는 정체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문화적 요인과 군사분쟁에 관한 기존의 계량적 분석을 재검토하는 목적 하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먼저 문화적 요인(문화유사성)과 군사분쟁 발발 변수의 측정을 위해 데이터와 변수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계량적 연구 결과들이 특정 데이터와 변수 측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는지를 확인하는 강건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문화적 유사성 변수를 위해 사용된 문명권 분류 데이터 외에도 인종유사성, 종교유사성, 언어유사성 등의 문화적 요인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여서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비유사성은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군사충돌의 발발을 일으킨다는 ‘문명충돌론’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명충돌론 가설과는 정반대의 가설인 문화유사성이 오히려 군사분쟁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차별성은 기존연구들이 간과한 문화변수와 군사충돌 두 변수간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함으로써, 상호인과성이 존재할 경우에 일방향 분석이 저지를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피할 수 있었고, 문화유사성과 군사분쟁 사이에는 상호인과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먼저, 문명간 충돌보다는 문명 내의 충돌에 대한 관심 전환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대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문명 간 충돌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통의 역사, 언어, 종교 등의 문화적 요인을 공유하는 문명 내의 국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문명 간 충돌의 사례가 아닌 문명 내의 충돌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헌팅턴의 문명 개념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 문명의 분류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자의적 구분의 원인 중의 하나는 문화적 정체성은 단일적이지 않고 다중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와 많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드네프르 강 서쪽 지역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구분되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력보다는 서방 진영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를 종교에 국한시키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중심의 문명권이 아닌 분열된 형태의 정체성을 지닌 국가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헌팅턴도 우크라이나를 ‘분열된 국가’(cleft country)로 표현하면서, 정교권 문명에 속한 동부 우크라이나와 연합동방가톨릭(Uniate Church)의 영향력이 강한 서부 우크라이나 간의 문명 단층에 주목한 바가 있다(Huntington 1996: 37). 한국은 헌팅턴이 분류하는 유교문명권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희구하는 국가이자 민족의식이 강한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문명의 충돌론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문명과 대립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다중의 정체성을 가진 문명 내의 국가들에 대한 차이점의 분석이 자의적인 문명의 구분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분쟁이 발발할 때마다 반사신경적으로 소환되는 문명충돌론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 시각을 고착화시키고 비서구권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6. “문명충돌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 562-591. 서울: 사회평론.
- 권선홍. 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집 2호, 103-134.
- 권선홍. 2014. “유교의 예(禮)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집 2호, 139-170.
- 권선홍. 2017. “전통시대 유교문명권의 책봉·조공제도 부정론에 대한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57집 1호, 7-40.
- 김명섭. 2003. “탈냉전기 국제정치학의 문명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431-451.
- 김형민. 2017a.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명충돌론의 주장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집 2호, 113-146.
- 김형민. 2017b.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집 1호, 113-146.
- 김형민. 2017c. “숙적관계가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집 2호, 123-152.
- 김형민·이장욱·이재철. 2018. “외교교류가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아세아』 25집 2호, 41-71.
- 김형민·유진석. 2024. “외교협력과 군사충돌의 상호성에 관한 고찰.” 미출판 논문.
- 민병원. 2006. “문화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개념을 통한 이해.”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 7-30.
- 양승태. 2012. “문명충돌의 정치와 정치학: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문명사적 접근 서설.” 『한국정치학회보』 46집 2호, 97-116.
- 양준희. 2002. “비판적 시각에서 본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국제정치논총』 42집 1호, 29-50.
- 이선엽. 2010. “문명의 충돌과 테러리즘의 기원: 문명 간의 대화.” 『한국테러학회보』 3집 2호, 159-185.
- 이용희. 1962. 『일반국제정치학(상)』. 서울: 박영사.
- 이장욱·김형민. 2019. “국제연합 표결의 국제정치학: 군사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집 1호, 7-38.
- 장신성. 2003. “동아시아의 문명과 국제사회: 구성원리와 존재방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집 2호, 63-92.
-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집 4호, 111-138.
- 장인성. 2004.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의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한국과 국제정치』 20집 4호, 107-136.

- 장준호. 2005. “문명의 충돌 및 공존.”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51-90. 서울: 인간사랑.
- 장준호. 2007. “후쿠야마 역사종언 테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1집 호, 169-194.
- 최정운. 2007.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28집 1호, 44-67.
- 최진우. 2012. “정치학적 문화 연구의 지형과 지평.” 『국제정치연구』 15집 1호, 59-85.
- 홍성민. 2002. “정체성과 국제정치: <문명충돌론>의 정치사회학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2집 1호, 7-28.
- Amemiya, Takeshi. 1978. “The Estimation of a Simultaneous Equation Generalized Probit Model.” *Econometrica* 46(5): 1193-1205.
- Bailey, Michael, Anton Strezhnev, and Erik Voeten. 2017. “Estimating Dynamic State Preferences from United National Voting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2): 430-456.
- Barbieri, Katherine, and Omar M. G. Keshk. 2016. Correlates of War Project Trade Data Set Codebook, Version 4.0. Online: (검색일: 2023.12.01).
- Barbieri, Katherine, Omar M. G. Keshk, and Brian Pollins. 2009. “TRADING DATA: Evaluating our Assumptions and Coding Rul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6(5): 471-491.
- Beck, Nathaniel, Jonathan N. Katz, and Richard Tucker. 1998. “Taking Time Seriously: Time-Series-Cross-Sectional Analysis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4): 1260-1288.
- Bennett, D. Scott, and Allan C. Stam. 2000.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26(2): 179-204. Online: <https://eugenesoftware.la.psu.edu/> (검색일: 2023.12.01).
- Brecher, Michael, and Jonathan Wilkenfeld. 2000. *A Study of Crisi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iozza, Giacomo. 2002. “Is There a Clash of Civilizations? Evidence from Pattern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volvement, 1946~97.” *Journal of Peace Research* 39(6): 711-734.
- Cohen, Jacob.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37-46.
- Cordell, Karl, and Stefan Wolff. 2016. *The Routledge Handbook of Ethnic Conflict*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Cranmer, S. J., B. A. Desmarais, and J. H. Kirkland. 2012. “Toward a Network Theory of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38(3): 295-324.
- Crescenzi, Mark J. C., and Andrew J. Enterline. 2001. “Time Remembered: A Dynamic Model of Interstate Inter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3): 409-431.

- Crescenzi, Mark J. C., Andrew J. Enterline, and S. Long. 2008. "Bringing Cooperation Back In: A Dynamic Model of Interstate Interac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3): 264-280.
- Davis, David R., Keith Jagers, and Will H. Moore. 1997. "Ethnicity, Minoriti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 *Wars in the Midst of Peace*, edited by David Carment and Patrick James, 148-163.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Ellingsen, Tanja. 2000. "Colorful Community or Ethnic Witches' Brew?: Multiethnicity and Domestic Conflict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 (2): 228-249.
- Fiedler, Robert. 2013. *Is the Clash of Civilizations, as Predicted by Samuel Huntington, Inescapable?* GRIN Verlag.
- Fox, Jonathan. 2001. "Two Civilizations and Ethnic Conflict: Islam and the West." *Journal of Peace Research* 38(4): 459-472.
- Fox, Jonathan. 2002. "Ethnic Minorities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A Quantitative Analysis of Huntington's The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317-338.
- Fox, Jonathan. 2004. *Religion, Civilization, and Civil War: 1945 through the Millennium*. Lanham, MD: Lexington Books.
- Fox, Jonathan. 2007. "The Rise of Religion and the Fall of the Civilization Paradigm as Explanations for Intra-state Conflict."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0(3): 361-382.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3-18.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NY: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함중빈 역. 1989. 『역사의 종언』. 서울: 대한민국 헌정회.
- Gartzke, Erik and Kristian Skrede Gleditsch. 2006. "Identity and Conflict: Ties that Bind and Differences that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1): 53-87.
- Ghosn, Faten, Glenn Palmer, and Stuart Bremer. 2004.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1(2): 133-154.
- Gibler, Douglas M. 2009. *International Military Alliances from 1648 to 2008*.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Gleditsch, Kristian S, and Ward, Michael D. 2001. "Measuring Space: A Minimum Distance Database." *Journal of Peace Research* 38 (6): 749-768.
- Gleditsch, N. P., and J. D. Singer. 1995. "Distance and International War, 1816~1965."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Fifth General Conference*, edited by M. R. Khan, 481-506.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 Glenn Palmer, Vito D'Orazio, Michael Kenwick, and Matthew Lane. 2015. "The MID4 Data Set, 2002~2010."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2(2): 222-242.

- Gochman, Charles S. 1991. "Interstate Metrics: Conceptualizing, Operationalizing, and Measuring the Geographic Proximity of States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1): 93-112.
- Gray, John. 1998. "Global Utopias and Clashing Civilizations: Misunderstanding the Present." *International Affairs* 74(1): 149-163.
- Greene, W. H. 2011. *Econometric Analysis* (7th edition). New York, NY: Pearson.
- Gujarati, D. N., and D. C. Poter. 2009. *Basic Econometrics* (5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 Gurr, Ted Robert. 1994. "Peoples against States: Ethnopolitical Conflict and the Changing World 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8(3): 347-377.
- Häge, F. M. 2011. "Choice or Circumstance? Adjusting Measures of Foreign Policy Similarity for Chance Agreement." *Political Analysis* 19(3): 287-305.
- Haveman, Jon. 2017. "Linguistic Links." Online: <https://www.colorado.edu/cwa/jon-haveman> (검색일: 2023.12.01).
- Head, Keith, Thierry Mayer, and John Ries. 2010. "The Erosion of Colonial Trade Linkages after Indepen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1(1): 1-14.
- Heckman, James J. 1978. "Dummy Endogenous Variables in a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Econometrica* 46: 931-959.
- Hegre, Håvard,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763-774.
- Henderson, Errol A. 1997. "Culture or Contiguity?: Ethnic Conflict, the Similarity of States, and the Onset of Interstate War, 1820~1989."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5): 649-668.
- Henderson, Errol A. 1998. "The Democratic Peace through the Lens of Culture, 1820~1989."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3): 461-484.
- Henderson, Errol A. 2005. "Not Letting Evidence Get in the Way of Assumptions: Testing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sis with More Recent Data." *International Politics* 42(4): 458-469.
- Henderson, Errol A., and David Singer. 2000. "Civil War in the Post-colonial World, 1946~92." *Journal of Peace Research* 37(3): 275-299.
- Henderson, Errol A., and Richard Tucker. 2001. "Clear and Present Strangers: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2): 317-338.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Simon & Schuster.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박영사.

- Ikenberry, G. John. 1997. "The West: Precious, Not Unique: Civilizations Make for a Poor Paradigm Just Like the Rest." *Foreign Affairs* 76(2): 162-163.
- Jesse, Neal G. and Kristen P. Williams. 2010. *Ethnic Conflict: A Systematic Approach to Cases of Conflict*. Washington DC: CQ Press.
- Jones, Daniel M., Stuart A. Bremer, and J. David Singer. 1996.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5(2): 163-213.
- Kirkpatrick, Jeane J., Albert L. Weeks, and Gerard Piel. 1993. "The Modernizing Imperative: Tradition and Change." *Foreign Affairs* 72(4): 22-26.
- Kurth, James. 1994. "The Real Clash." *The National Interest* 37: 3-15.
- Lai, Brian. 2006. "An Empirical Examination of Religion an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1950~1992." *Foreign Policy Analysis* 2(1): 21-36.
- Lai, Brian, and Dan Reiter. 2000.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2): 203-227.
- Leng, Russell J., and Patrick Regan. 2003. "Culture and Negotiation in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0(2): 111-132.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oz, Zeev, and Errol A. Henderson. 2013. "The World Religion Dataset, 1945~2010: Logic, Estimates, and Trend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9(3): 265-295.
- Maoz, Zeev, Paul L. Johnson, Jasper Kaplan, Fiona Ogunkoya, and Aaron Shreve. 2018. "The Dyad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MIDs) Dataset Version 3.0: Logic, Characteristics, and Comparisons to Alternative Datase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3): 811-835.
- Marshall, Monty G., and Ted Robert Gurr. 2020. "Polity5: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8". Dataset Users' Manual. Center for Systemic Peace. Online: (검색일: 2023.12.01).
- Melitz, Jacques, and Farid Toubal. 2014. "Native Language, Spoken Language, Translation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3(2): 351-363.
- Midlarsky, Manus I. 1998. "Democracy and Islam: Implications for Civilizational Conflict and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3): 485-511.
- Müller, Harald. 1998.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이영희 역. 2002.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 숲.
- Neckermann, Peter. 1998. "The Promise of Globalization or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 World & I* 13-12: 315-323.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1997.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2): 267-293.
- Oneal, John R., Bruce Russett, and M. L. Berbaum. 2003.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3): 371-393.
- Palmer, Glenn,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and M. Lane. 2015. “The MID4 Data Set: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2(2): 222-242.
- Palmer, Glenn, Roseanne W. McManus,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Mikaela Karstens, Chase Bloch, Nick Dietrich, Kayla Kahn, Kellan Ritter, and Michael J. Soules.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9(4): 470-482.
- 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CEPII). Gravity Database. Online: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_modele.asp (검색일: 2023.12.01).
- Ruelland, Jacques G. 1993. *Histoire de la Guerre Saint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연실 역. 2003. 『성전, 문명 충돌의 역사: 종교갈등의 오랜 기원을 찾아서』. 서울: 한길사.
- Russett, Bruce, and John R.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 Russett, Bruce, John R. Oneal, and Michaelene Cox. 2000. “Clash of Civilizations, or Realism and Liberalism Déjà Vu? Some Evid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37(5): 583-608.
- Scott, William A. 1955.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e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19(3): 321-325.
- Senghaas, Dieter. 1998. “A Clash of Civilizations: An Idée Fixe?” *Journal of Peace Research* 35(1): 127-132.
- Signorino, Curtis S., and Jeffrey M. Ritter. 1999.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1): 115-144.
- Singer, J. David. 1987.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14(2): 115-132.
- Small, Melvin, and J. David Singer. 1969. “Formal Alliances, 1815~1965: An Extension of the Basic Data.”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257-282.
- Singer, J. David, S. A. Bremer, and J. Stuckey,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Peace, War, and Numbers*, edited by Bruce Russett, 19-48.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tinnett, Douglas M., Jaroslav Tir, Philip Schafer, Paul F. Diehl, and Charles Gochman. 2002.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Direct Contiguity Data, Version 3.”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9(2): 58-66.
- Tusicsiny, Andrej. 2004. “Civilizational Conflicts: More Frequent, Longer, and Bloodier?”

Journal of Peace Research 41(4): 485-498.

Voeten, Erik. 2013. "Data and Analyses of Voting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edited by Bob Reinalda, 54-66, Routledge: London.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mazaki, Masakazu. 1996.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75(4): 106-118.

논문접수일: 2024.05.07
수정일: 2024.06.13
게재확정일: 2024.06.14

- 김형민은 2007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이며 주로 국제정치이론과 동북아 국제관계가 관심분야다. 대표논문으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한국정치학회보』 2009)과 “The Classical Liberals Were Half Right (or Half Wrong)”(*Journal of Peace Research* 2005) 등이 있다(hmkim@mju.ac.kr).
- 유진석은 2005년 Duk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이며 국제정치이론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핵관련 주제가 관심분야다. 대표논문으로는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U.S. and South Korean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Korea Observer 2008)과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한국과 국제정치』 2018)이 있으며 공저로서 『현대외교정책론』(서울: 명인문화사, 2022)이 있다(jyu@sookmyung.ac.kr)

〈부록 1〉

문화요인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V (sensitivity analysis);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모델 1	1.0881***	0.1254	모델 19	0.9628***	0.1840
모델 2	1.0959***	0.1430	모델 20	1.0678***	0.1919
모델 3	0.3506 ⁺	0.2154	모델 21	0.6997*	0.3094
모델 4	1.3542***	0.1413	모델 22	4.5663***	0.3459
모델 5	1.2981***	0.1664	모델 23	4.0856***	0.4661
모델 6	0.4710**	0.2619	모델 24	2.3342**	0.9574
모델 7	0.9735***	0.1204	모델 25	1.0956***	0.2490
모델 8	0.9653***	0.1380	모델 26	1.0054***	0.2780
모델 9	0.2718 ⁺	0.1990	모델 27	0.3689	0.4023
모델 10	-1.2213***	0.1397	모델 28	1.4262***	0.2419
모델 11	-1.1727***	0.1633	모델 29	1.2809***	0.2833
모델 12	-0.3368 ⁺	0.2448	모델 30	0.9614**	0.3961
모델 13	0.5875***	0.1930	모델 31	1.1376***	0.1855
모델 14	0.5569**	0.2259	모델 32	1.0559***	0.2177
모델 15	-0.6293**	0.2627	모델 33	1.0736***	0.2969
모델 16	0.7861***	0.1909	모델 34	1.1822***	0.2024
모델 17	0.7555***	0.2217	모델 35	1.0743***	0.2366
모델 18	-0.3977 ⁺	0.2871	모델 36	0.7765**	0.3327

주: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문화유사성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인 모델 1에서 모델 36은 (군사 분쟁 모델에서의 문화유사성 변수의 인과성 분석결과), 군사충돌 모델의 군사충돌 변수와 문화유사성 변수를 다양화하여 분석한 연구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 모델 3은 러셋, 오닐과 콕스(Russett et al. 2000) 문화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 (군사충돌 데이터와 측정방법으로, 모델 1은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모델 2는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모델 3은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모델 4에서 모델 6은 헨더슨과 터커(Henderson and Tucker 2001)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7에서 모델 9는 갤로웨이(Galloway 2008))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10에서 모델 12는 키오자(Chiozza 2002)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13에서 모델 15과 모델 16에서 모델 18은 콕스(Fox 2001, 2002)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19에서 모델 21은 마오즈와 헨더슨(Maoz and Henderson 2013) 종교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22에서 모델 24는 라이와 라이터(Lai and Reiter 2000) 인종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25에서 모델 27은 라이와 라이터(Lai and Reiter 2000) 언어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28에서 모델 30은 CEPII GeoDist (Head et al. 2010; Melitz and Toubal 2014)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31에서 모델 33은 헤이브만(Haveman 2017) 공통 공식언어(common official language)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34에서 모델 36은 헤이브만(Haveman 2017) 언어 근접성(linguistic proximity)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활용한 모델이다.

〈Abstract〉

Cultural Similarities and Militarized Conflicts : Focusing on Reciprocal Causation

Hyung Min Kim · Jinseog Yu

(Myongji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has focused on the major paradigms of realism and liberalism, including the power balance and militarized alliance of realism (balance of power, alliance theories) and the democracy level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of liberalism (democratic peace, liberal peace theories). However, growing interest has considered cultural factors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s. This study applies this cultural paradigm of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o studies of militarized conflicts.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cultural similarities on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and aims to contribute to existing related studies in two way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assessing the effect of cultural factors on militarized conflicts (one-way caus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by focusing on the simultaneous caus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two-way causation); second, unlike previous work on using the civilizations categories (Huntington 1993, 1996; and others) as the data and variable measurements for cultural aspects, this study uses Huntington and others' civilizations data and measurement to examine cultural factors as well as other data and measurements of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similariti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not only do cultural similarities positively affect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but the onset of conflicts also negatively affect cultural similarities among states, thereby demonstrating simultaneous causations between the two aspects.

Keywords : Militarized Conflicts, Cultural Similarities, Ethnic Similarities, Religious Similarities, Linguistic Similarities, Reciprocal Causation